

헛갈릴만한 문제들의 “허접한 해설”

4번.

이 문제는 EBS 연계 지문만 아닐뿐, 꽤나 쉬운 편에 속합니다.

빈칸 밑으로 주욱 읽어내려가시면 아시겠지만, ‘성 역할의 형성에 우리가 평소 소비하는 물건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바로 밑 문장에서 In any toy store the arrangement of the aisles recapitulates the strict distinction an separation of the sexes <← 이 부분만 봐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지요.

그리고 Just as banks, in the child’s view, are windows that inexplicably dispense cash to those in need, toy stores dispense gendered information about how to play <←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의 눈에 은행은 웬지 모르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것처럼, 장난감 가게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은행에서의 돈”처럼 “gendered information”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일단 toy가 the goods that we consume에 해당한다는 것을 캐치하신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단어도 없었고, 헛갈리는 선지도 없습니다.

10번.

이 문제는 EBS 연계 지문이라 딱히 지문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만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3번과 4번을 헛갈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좌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은 명확히 4번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귀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글에 보면 fennec fox도 african elephant 마냥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3번 선지인 One thing in common the fennec fox and the African elephant have를 맞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것이 주제는 아니죠. 단지 “글에 언급한 적이 있을 뿐” 그것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해봅니다 ㅋㅋ

12번.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문제를 공개하기 전에 쓰는 해설이라 제가 학생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닐는지 걱정입니다.. 근데 전 좀 어려웠어요. 솔직히 지금도 약간 헛갈려요 ㅠ

어쨌든 이 글은 emotion과 feeling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emotion(feeling)이 영적 상태를 알아보는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단 처음 문장에서 emotion이 소통의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첫 문장에 뒤이어 나오는 For this purpose “emotion” must be considered equivalent to “feeling.”이라는 문장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emotion이 소통의 수단이 된 거랑 emotion과 feeling이 같은 거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문맥상 feeling은 ‘해석할 필요가 있는’ 느낌이고, emotion은 단순히 ‘슬픔, 기쁨 등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감정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emotion은 꿈처럼 해석할 필요가 있는 메시지였다’라고 말했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이론적으로 emotion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감정일 뿐입니다. emotion이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emotion이 feeling과 동일시되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emotion이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뒤이어 굳이 emotion과 feeling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지요.

사실 이것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emotion” must be considered equivalent to “feeling.” <← 이 문장을 빈칸으로 뚫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문맥에 부적절한 어휘 찾기 유형으로 바뀌버렸습니다. 분명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극악이기도 하지만 더러운 문제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좀 쉬워졌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지문 자체를 해석하려 하면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emotion은 “like dreams they were messages to be decoded.”, 즉 꿈처럼 해독되어야 하는 메시지가기 때문에 clear communication이 아니라 obscure communication으로 여겨졌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것만 보면 간단한 문제죠?

18번.

18번은 지문 자체는 쉬운데, 빈칸을 뚫어놓은 게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답이 a recreational activity인데, 뒷 문장을 통해 그것을 바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아예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이라는 것에서부터 일단 tool for survival이나 conventional approach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구요. 뒷 문장인 people sliding on the ice, with those “more skilled” tying bones to their feet and pushing themselves along with poles while being “borne along swift as a bird in flight.” <← more skilled라던지 스스로 발에 뭍어서 대를 갖고 밀었다는 점을 볼 때 ‘오락적 활동’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지요. 바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설명드렸습시다만, 나머지 선지들이 다 이상해서 쉽게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번.

이 문제는 참 쉬운데 비연계 지문이라서 그냥 살짝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biology과 human aggression의 관계에 관한 아주 극악의 난이도의 지문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빼버리고 가벼운 철학 지문을 하나 박았습니다. 헤헤 주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바로 답이 나옵니다. philosophy에서 death를 참 많이 다루었다는 내용이죠. 소크라테스가 한번 다룬 이후로 서양 철학을 지배해왔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Death and Philosophy: No Chains to Unlock 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해석하면 “죽음과 철학: 뗄 수 없는 관계”인데, no chains to unlock이 비유적, 관용적 표현이라 해석 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네요. “열어서 풀 수 있는 사슬이 없다”, 즉 풀 수 없는 사슬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도 답이 될 선지가 이것 밖에 없어서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24번.

이 자리에 cross-national comparison of crime에 관한 어려운 지문을 박을 예정이었습니
다만, 범죄학을 배우지 않으면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쉬운 경제 지문을 이용하여 문제를 냈습니다.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대략 여러 종류의 경제 세계화와 그것들의 효과를 구분하여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첫 문장에 우선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뒤이어 통념과 달리 trade
openness와 capital mobility가 꼭 밀접하게 관련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국가마다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trade는 개방하되 financial flow는 덜 개방하거나, 그 반대
의 정책을 취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A) 뒤에는 trade와 capital의 흐름이 내수 경제에 다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나오므
로, 앞의 문장과 관련이 있지만 그것에 더욱 “추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reover, Additionally 등의 접속사가 나와야 하겠죠?

(B) 뒤에는 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economic openness로 통쳐서 생각하지 말고, capital
market openness 자체의 특정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고려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Thus, Therefore 등의 접속사가 나와야 합니다. 참 쉽죠? 헤헤 그래서 답은 4번!

음, 이 이외에는 그다지 어렵거나 헷갈릴만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만든 다음에
직접 뽑아서 풀어봤는데, 문제들 자체가 그다지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도
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당.